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한 국내외 평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인식과 평가가 법규나 제도 등의 강제를 통해 사회의 구체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더 이상 많은 의견 중의 '하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 홍보 수석, 언론 특보를 지냈으며 '이명박의 아바타', '빠 속까지 이명박'을 '자처'하는 이동관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상황을 '표현의 과잉'과 '방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평가는 우리나라 언론 상황에 대한 현 정권과 그를 둘러싼 집권 세력의 인식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유엔의 표현 자유 특별보고관 라 퀴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과잉 남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말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라 퀴 특별보고관은 '충격(shock)'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인권은 '과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바로잡아' 줍니다.¹⁾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겠다'는 재벌 총수의 발언을 들었을 때,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 입가에는 어이없는 미소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미디를 실제의 사회 현실로 체험하면서 사람들의 입가에서 웃음은 사라지고, 경직된 입을 다시 추슬러 다무는 씁쓸한 어색함이 반복됩니다.

망령이 아니라 - 집권 가능한 - 정치 실체로서 다시 '유신'을 대면해야 하는 현재와 맞물려, 우리나라 언론 상황을 '과잉'과 '방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생각'으로 간주하려는 관념적 여유와 관용이 두려워집니다. 현재가 언론 자유의 쇠퇴기로서 잠깐 겪어야 하는 한 순간이 아니라, 가치 자체가 상대화되거나 실종된 지속적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고 뒷골 당기는 오싹함이 머리카락 끝으로 치솟습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즉,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언론 상황의 현재는 현재 이전의 결과입니다. 언론의 가치와 규범, 과제를 마련하는 정치 영역과 그렇게 사회적으로 주어진 틀 안에서 과제를 자율적으로 실현하는 언론 영역, 그리고 언론의 실현 과정과 결과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시민사회 영역의 여러 요소들이 지금까지 상호 작용하고 반작용한 과정의 결과가 현재입니다. 지금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이명박 정권이 차지하는 몫의 '상대적'인 크기 문제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주류 언론에서 나타나는 - 역사적 진보의 관점 뿐 아니라 동시대의 세계적 관점에서 - 언론 가치의 '절대적' 퇴행은 심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조건들이 마련되고 민주적 가치의 상식적 실현이 정착된 것으로 믿었던 한국에서 언론 가치에 대한 -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훼손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미 과거이고 공간적으로 먼 독재 국가의 일인 줄 알았던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 구속과 신분 탄압이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회 언론에 대한 소수 권력집단의 노골적인 '사적 도구화' 시도가 이제는 변명도 없이 그저 저질러집니다. 이른바 '선진국'의 '팔자 좋은' 언론인들처럼 근무 환경과 복지를 위한 '사측과 노조의 내부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 언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유의 기록적인 언론인 파업이 벌어집니다. 후진적인 인권과 언론 상황에서 벗어난 성공 모델로 간주되던 한국에 국제기구의 특별 조사관들이 파견되고 퇴행을 우려하는 보고서들이 발표됩니다.

'자유 과잉'과 '방종'으로 보는 지배세력의 시각과는 정반대의 맥락에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 상황을 걱정하게 만드는 자료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주도층, 언론인들의 평가는 동시대적인 세계적 비교에서도, 그리고 이명박 정권 초기나 그 이전과의 시간적 비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1) 황경상.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비협조에 당혹감". 인터넷 경향신문, 2010-0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00253305&code=94&cmtpage=&cmtpage=1

해외/국제 자료

국제연합 (UN)

-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Frank Ra Rue)의 방문 조사.
 - 2010년 5월 4일에 입국하여 6일부터 12일 동안 공식 조사 활동을 수행.
 -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993년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여, 그동안 192개 유엔 회원국 중 24개국을 방문했다.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5년만이며,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두 차례 이상 공식 방문한 나라는 이란과 한국 두 나라 뿐이다.²⁾
 - 2010년 5월 17일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으며, 유엔에도 보고했다.
 -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서울의 기자회견에서:
 - ㄴ 방문 조사의 목적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상황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여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 ㄴ 1987년 이후 한국이 인권 부분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지난 2년 동안 인권, 특히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급속도로 위축되어 왔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³⁾

•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의 국제연합(UN) 조사 보고서

- 제목: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진흥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고 유엔 총회에 배포: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제 제3호, 유엔 총회 배포 2011년 3월 21일.
- 모두 22쪽의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 및 역사적 배경, 국제적인 법 기준, 국내 법 상황, 의견 및 표현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한국 현황, 그리고 결론 및 권고 사항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요약문이 있다.

* 주요 내용⁴⁾:

-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포함하여 한국이 활기찬 민주국가로서 이론 진보를 높이 평가한다.(요약)⁵⁾

2) 김민경. 유엔 특별보고관 15년 만에 방한. MBC파업현장 등 방문 12일간 ‘표현의 자유’ 실태조사. 한겨레, 2010.05.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9469.html

3)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 한국 방문 보고 기자회견 전문. <http://act.jinbo.net/drupal/node/5608>

4) 주요 내용은 보고서 요약 부분(Summary)과 서론(Introduction)의 일부 이외에 대부분은 결론 및 권고 부분(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La Rue, Frank(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istr.: 21 March 2011. A/HRC/17/27/Add.2.

http://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2011유엔특별보고관한국보고서_en_0.pdf. 한글 번역본: 프랑크 라 뤼.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http://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2011유엔특별보고관한국보고서_NGO번역본_.pdf

5) 보고서에는 별도의 요약문 외에 본문에는 각 문단마다 순서 번호가 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이

- 그러나 2008년 촛불시위 이후 개인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제약이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요약)
-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임무이고 정부 초청에 의한 공식 방문임에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인사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유감이며 실망을 표명한다.(5. 문단)

- 명예훼손

- ㄴ 명예훼손이 형사상 범죄로 남아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진다.(28. 문단)
- ㄴ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89. 문단)
- ㄴ 공직자와 기관은 공공 감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의 제기를 금지해야 한다.(89. 문단)

- 인터넷에서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

- ㄴ 한국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세계에서 광대역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17. 문단)
- ㄴ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31. 문단)
- 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우려한다.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그래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재 기능을 이양할 것을 권고한다.(93. 문단)
- ㄴ 특별보고관은 규정이 모호하고, 허위 정보 출판을 이유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폐기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34. 문단),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90. 문단)
- ㄴ 인터넷의 본인 확인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52. 문단)
- ㄴ 실명 등록이 익명성에 기반하는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오로지 범죄와 관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94. 문단)

- 선거 전 의견과 표현의 자유

- ㄴ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진, 문서, 그림, 출력물, 그리고 유사물의 배포나 게시를 금지한다.(53. 문단)
- ㄴ 선거관리위원회는 NGO, 종교단체와 같은 단체들이 선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과 관련한 사진, 문서 등과 같은 것들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55. 문단)
- ㄴ 선거 이슈 관련 정보의 전파와 관련하여 선거 전 6개월의 금지 기간은 지나치게 긴 시간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57. 문단)

- 집회의 자유

- ㄴ 헌법 제21조는 집회가 허가제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관할 경찰서에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59. 문단)

번호를 의미한다.

- ㄴ 시위가 폭력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사전에 판단하고 폭력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시위를 단속함으로써,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60. 문단)
- ㄴ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표현 자유 권리의 집단적 행사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96. 문단)

-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제한

- ㄴ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97. 문단)
- ㄴ 금서 지정은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간주하며, 불온서적을 결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정부에게 그러한 금지를 무효화할 것을 촉구한다.(99. 문단)

- 공무원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ㄴ 공무원 또한 개인으로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교육정책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업무 이외의 활동일 경우,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도 교사가 국민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적 피선거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80. 문단)
- ㄴ 공무 밖에서 행사되고 교육정책과 같은 공익적 사안과 관련될 경우, 교사들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100. 문단)

- 언론의 독립

- 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이랑 TV, 스카이 라이프 그리고 YTN을 포함한 여러 미디어들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효과적인 임명절차를 통해 방송사 사장과 운영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81. 문단)
- ㄴ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방송 영역에서의 교차소유 허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기업, 신문사 그리고 외국자본의 방송 부문 진출을 가능하게 하여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훼손될 것임을 우려한다.(82. 문단)
- ㄴ 한국에 존재하는 미디어 다원성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임명절차를 통해 방송사 사장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신문과 방송 영역의 교차소유와 언론재벌의 형성을 금지함으로써 미디어 다양성과 다원성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101. 문단)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 ㄴ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83. 문단)
- ㄴ 의견과 표현 자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적 역할을 볼 때, 임명 절차를 통한 인권위원들의 독립성과 인권 전문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85. 문단)

국제앰네스티

* 2012년 연례보고서: 표현의 자유⁶⁾

- 2012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들을 기소하거나 압박한 사례를 이유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
-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특히 북한과 관련된 논의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
-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35명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개인과 단체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 2011년 10월 30일 현재 경찰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는 모두 67,300건으로, 2009년 4,430건에서 급격히 상승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 국경없는 기자회⁷⁾

- 1985년, 프랑스 몽펠리에(Montpellier)에서 4명의 언론인에 의해 설립.
- 언론자유와 검열 반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 정보와 표현의 자유, 미디어의 자유를 위한 노력, 특히 투옥되거나 위협 받는 언론인에 대한 지원 활동.

* 뱅상 브로셀(Vincent Brossel): 국경없는 기자회 대변인 겸 아시아/태평양 데스크

- 2009년 3월 23일부터 4박 5일 동안 한국의 언론 상황 취재.
- 한국의 언론자유 문제가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바뀌었다면서, “프랑스에서도 겪고 있고 많은 서구 국가에서도 정치권력과 결탁한 경제 권력, 그리고 이들과 궤를 같이하는 언론 권력 사이에서 언론인들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력에 의한 직접 개입이 이뤄진다는 면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는 후퇴했다”고 평가.⁸⁾
- PD수첩 이춘근 PD의 긴급 체포와 관련, 국경없는 기자회 대변인 자격으로 “언론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아시아의 모델이 될 만한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라고 논평.⁹⁾
-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YTN 현덕수, 조승호, 임장혁 기자를 면담한 후 “방송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심각한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¹⁰⁾

6) 국제앰네스티.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 보고서. 남한(대한민국). 18쪽.

<http://amnesty.or.kr/about/연례보고서>

7)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홈페이지 참조.

<http://en.rsf.org/who-we-are-12-09-2012,32617.html>

8) 고재열. “한국 언론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시사인 라이브, 2009.04.0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5>

9) 위와 같은 곳.

10) 위와 같은 곳.

*** 국경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언론 및 미디어 자유 순위.
- 순위는 언론의 객관적 조건과 환경에 대한 평가이며,
- 해당 국가에서의 보도의 질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 국경없는 기자회의 서구 중심적 자유주의 이념, 언론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언론인과 국가 선정에 있어서의 편향성, 특정 국가 정부에 의한 재정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¹¹⁾

*** 2011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

- 조사 기간: 2010. 12. 1 - 2011. 11. 30.¹²⁾
- 44개 범주의 설문:
 - ↳ 언론인(살해, 투옥, 신체적 공격과 협박 등)과 미디어(검열, 신문의 압수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론자유 침해, 언론자유 침해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 상황 등.
 - ↳ 미디어의 법적 환경(미디어법의 처벌규정, 국가독점, 또는 규제 기구의 존재 등), 공공 미디어의 독립성 정도, 자기 검열, 취재의 자유, 재정 압박 등.
 - ↳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의 장애물, 국가로부터의 언론자유 침해 뿐 아니라, 무장 세력, 지하조직, 또는 기타 이해집단들의 위협 등.
- 설문 대상:
 - ↳ 국경 없는 기자회의 파트너 조직,
 - ↳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 통신원 150명,
 - ↳ 언론인, 학자, 법조인, 인권활동가 등.
-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 순위는 높아진다.
- ↳ 2011년에 실시된 조사부터 나라별 차별화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 점수가 등장한다.
- ↳ 그러나 기존 조사의 나라별 순위와는 같은 맥락에 서 있기 때문에 기존 순위 및 나라별 순위 비교의 의미는 유지된다.

*** 2011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¹³⁾:**

- 12.67점으로 179개 국가 중에서 44위. 2010년보다 2단계 하락.
- 일본 22위(-1점), 중국 174위(136점).
-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10점으로 공동 1위고, 에스토니아와 네덜란드가 -9점으로 공동 3위.
- 미국은 아르헨티나, 루마니아와 함께 47위(14점).
- 독일 16위(-3점), 영국 28위(2점), 이태리 61위(19.67).

11) Groß, Elke / Sieker, Ekkehard (2007). Reporter ohne Grenzen - eine ‚Lovemark‘ der US-Regierung 참조.
<http://www.arbeiterfotografie.com/medien/2007-07-25-reporter-ohne-grenzen.html>

12) 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다음 자료 참조.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2). 2011-2012 Press Freedom Index. How the index is compiled. Paris, 20 January 2012.
http://en.rsf.org/IMG/pdf/how_the_2011-2012_index_was_compiled.pdf

13)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2). World Press Freedom Index 2011-2012.
http://en.rsf.org/IMG/CLASSEMENT_2012/C_GENERAL_ANG.pdf

- * 2002년 발표가 시작된 후, 우리나라는 최고 31위(2006년)까지 올라갔고, 2005년 34위, 2007년 39위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0위권에 머물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7위(2008년)로 낮아졌으며, 2009년에는 69위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4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5년의 점수 평균은 9.536점, 이명부 정부 4년의 점수 평균 12.6675점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 순위가 높아진다). (표1 참조)

<표1>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와 지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위	39	49	48	34	31	39	47	69	42	44
점수	10.50	9.17	11.13	7.50	7.75	12.13	9.00	15.67	13.33	12.67
출처: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행한 해당 연도의 'World Press Freedom Index'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¹⁴⁾										

* 인터넷의 적 및 감시대상국 보고서

- 국경없는 기자회는 '제한 없는 모두의 인터넷'을 지지하며 2008년부터 3월 12을 '세계 사이버 검열 반대의 날'로 정하고, 매년 이날 인터넷의 적 및 인터넷 감시대상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¹⁵⁾
 - 201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터넷 감시대상국가'로 분류.¹⁶⁾
 -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나라: 바레인, 벨라루스, 버마,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한국과 함께 인터넷 감시대상국가에 포함된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에리트리아, 프랑스, 인도, 카작스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튀니시아,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 * 국경없는 기자회가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확산된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은 2009년 보고서에서 '인터넷 감시대상국가'로 전락한 이후 2012년 올 해까지 그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⁷⁾
- 보고서는 발표 일 이전의 인터넷 검열이나 정보 자유 침해 사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국 2008년 이명박 정권 취임 후 2011년까지 4년 내내 '인터넷 감시대상국가'에 머물고 있는 셈이며, 2012년의 인터넷 검열 및 제한과 관련된 법제도와 규정, 그리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2013년 보고서에서도 그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14) 아래 인터넷 주소에 있는 전체 자료 참조.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1-2012,1043.html>

15)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day against Cyber censorship. <http://march12.rsf.org/en/>

16)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1). Internet Enemies Report 2012.

http://march12.rsf.org/i/Report_EnemiesoftheInternet_2012.pdf

17)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행하는 'Internet Enemies'의 2008년부터 2012년의 보고서 참조. 국경없는 기자회의 독일 홈페이지(Internet-Bericht)에서 전체 보고서(영문판)를 볼 수 있다.

<http://www.reporter-ohne-grenzen.de/publikationen/themenberichte/>

갤럽

* 2011년 세계 미디어 자유 지수

- 기간: 2011. 2월 - 12월.¹⁸⁾
- 세계적으로 133개 국가, 각 국에서 15세 이상 성인 약 1000명 대상.
- 전화와 면접 인터뷰.
- 95% 신뢰도, 오차 범위 ±2.2 ~ ±5.1.
- 물음: “이 나라에서 미디어는 많은 자유를 가지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Do the media in this country have a lot of freedom, or not?)
- 응답: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거부.

* 한국:

- 그렇다 59%, 아니다 36%, 모르겠다/거부 5%.¹⁹⁾
- 미디어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비율은 59%로 세계 평균(65%) 보다도 많이 떨어진다.
- 133 국가 중에서 87위로 하위 1/3 수준.
- 언론자유를 인정하는 비율로 보면 키르기스스탄(85위), 기니(86위), 자마йка(88위)와 같은 그룹.
- 한국은 64위에 있는 일본(66%, 26%, 8%)보다 많이 뒤처져 있고 89위의 중국(58%, 17%, 25%)과는 불과 1% 차이이다. 중국과 같은 비율로 우간다(58%, 41%, 1%), 카자흐스탄(58%, 21%, 21%), 방글라데시(58%, 18%, 24%), 베네주엘라(58%, 37%, 5%)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눈여겨 볼 것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인식하는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다.
- ↳ 미디어 자유에 대한 부정 응답 비율 순위로는 한국이 133개 국가 중 31위다.
- ↳ 자국의 미디어가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37% 이상) 나라는 공인된 언론 탄압 국가들을 포함하여 30개에 불과하다.²⁰⁾
- 1위인 핀란드의 경우, 전 국민의 97%가 자국의 미디어가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96%와 95%로 그 뒤를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한다.
- ↳ 이들 나라에서 미디어 자유가 없다는 응답도 2%, 3%, 5%로 언론자유를 인정하는 순위대로 매우 낮다. 모르겠다 내지 거부 비율은 세 나라 모두 1%다.
- 참고) 독일 92%, 5%, 3%. 미국 87%, 12%, 1%. 프랑스 83%, 14%, 3%.
- 참고) 미디어 자유 지수의 끝에는 가봉(27%, 71%, 2%)과 벨라루스(23%, 52%, 25%)가 있다.

18) English, Cynthia / Becker, Lee (2012). Two-Thirds Worldwide Say Media Are Free in Their Countries. People's perceptions align with press freedom indicators. GALLUP World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allup.com/poll/153455/Two-Thirds-Worldwide-Say-Media-Free-Countries.aspx#1>

19) 위와 같은 곳.

20) 미디어 자유의 부정 비율이 낮은 이유가 ‘모르겠다/거부’의 비율이 높기 때문일 수 있는 나라도 있다.

*** 갤럽 미디어 자유 지수의 특징:**

- 한 사회에서 미디어가 지니는 두 가지 능력에 대한 조사:
 - ↳ 사회에서의 민주적인 매개 능력과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강화시키는 능력.²¹⁾
 -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국가의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평가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조사.
 - 조사 주체에 의해 정의된 언론 자유 개념과 기준을 전제로, 조사자가 선정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에 의거하는 프리덤 하우스의 지표나 국경없는 기자회의 지수와 다른 점이다.
 - 외부 전문가의 평가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 스스로의 체감 평가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매체가 가지는 매개기능과 지향 기능, 그러한 능력을 통해 수행하는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역할의 실효성에 대한 간접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 * 2010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한국 국민의 언론자유 체감도(54%)는 세계 평균(67%) 보다 많이 낮은 반면, 언론 부자유의 체감 정도(40%)는 전체 평균(23%)보다 매우 높았다. 모르겠다/응답거부 비율은 우리나라와 전체 평균 6%로 동일하다.²²⁾
- 2010년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는 112개 나라 중 81위다.

프리덤 하우스

• 글로벌 언론 자유 순위

- * 프리덤 하우스가 198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들의 언론 자유 순위.
- * 프리덤 하우스가 설정하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문가와 학자들의 분석과 평가로 결정.
- * 설문²³⁾:
 - 법적 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의 3개 범주로 나누고,
 - 각 범주 별로 7개(정치적 환경) 내지 8개(법적 환경, 경제적 환경) 질문(모두 23개)이 있으며, 각 질문에는 대답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 평가 지표들(모두 109개)이 세부질문 형식으로 함께 제시된다.
 - 각 범주에 최고 점수가 할당되고 그에 따라 각각의 질문에도 최고 점수가 할당된다.
 - ↳ 법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 최고 30점, 정치적 환경 최고 40점.
 - ↳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이 자유로운 상태.
- 세 범주의 종합 점수(0점 - 100점)에 따라 각 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결정된다.
- ↳ 언론 자유의 지위: 자유 0점 - 30점, 부분적 자유 31점 - 60, 부자유 61점 - 100점.

21) English, Cynthia / Vlad, Tudor (2011). People Perceive Media Freedom Differently Worldwide. Chadians among the least likely to say media in their country have a lot of freedom. GALLUP World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allup.com/poll/150515/People-Perceive-Media-Freedom-Differently-Worldwide.aspx#1>

22) 위와 같은 곳.

23) 평가 방법과 과정, 설문 범주와 내용에 대해 Freedom House. Freedom of the Press 2012. Breakthroughs and Pushback in the Middle East. selected data from freedom house's annual press freedom index. 'Methodology', pp. 36 이하.

- * 2011년에 한국은 언론 자유 국가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 국가(30점에서 32점)로 강등됐다.²⁴⁾
- 참여 정부 후반(2006년)부터 언론 자유의 법적 환경(9점)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적 환경은 10점대에서 9점으로 오히려 좋아졌다. (표2 참조)
- 따라서 부분적 언론 자유 국가로 강등된 결정적 이유는 언론 자유의 정치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0점에서 2012년 14점으로 지속적 상승)
-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반공 이데올로기 성향으로 비판 받고 있는 프리덤 하우스의 관점에서 - ‘뺏 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 한국 언론의 정치적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표2> 연도 및 범주별 한국의 언론자유 점수와 지위

보고서 연도	법적 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종합 점수	지위
2002년	3	11	16	30	자유
2003년	7	10	12	29	자유
2004년	8	11	10	29	자유
2005년	8	11	10	29	자유
2006년	9	11	10	30	자유
2007년	9	11	10	30	자유
2008년	9	12	9	30	자유
2009년	9	12	9	30	자유
2010년	9	12	9	30	자유
2011년	9	14	9	32	부분적 자유
2012년	9	14	9	32	부분적 자유

출처: 'Freedom House. Detailed Data and Subscores 1980-2012'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²⁵⁾

에델만

• 신뢰도 지표 조사

- 에델만(Edelman)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PR 컨설팅 기업.²⁶⁾
- 매년 개인과 사회 여론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사회 기관(정부, 기업, 미디어, 비정부 기구(NGO) 등)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 출처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여 지표 산출.

* 2012년 제12회 신뢰도 지표 조사²⁷⁾

- 전 세계 25개국, 약 3만 명(일반 국민과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 국가별 일반 대중: 18세 이상 1천명.

24) 위와 같은 자료, GLOBAL PRESS FREEDOM RANKINGS, p. 14.

25) www.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FOTP%20Detailed%20Data%20and%20Subscores%201980-2012.xls

26) 에델만 및 에델만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http://www.edelman.com>, <http://www.edelman.kr/sites/kr/Pages/home.aspx>

27) 에델만 (2012). 2012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 한국 세부 결과. <http://www.edelman.kr/sites/kr/pages/insights.aspx>

- 국가별 여론주도층:
 - ↳ 미국과 중국 각 500명,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200명.
 - ↳ 연령대: 25세-64세.
 - ↳ 대졸 이상 학력.
 - ↳ 국가별/연령층별 가계소득 상위 25%.
 - ↳ 비즈니스 뉴스 및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미디어 소비와 참여 활동에 적극적.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사 대상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 한국²⁸⁾:

- 일반 대중 1천명과 여론주도층 200명 대상 조사.
- 2012년 일반 대중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42%로 세계 평균(46%) 보다도 낮다.
- 여론주도층(25세-64세)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2011년 53%에서 2012년 45%로 크게 하락했다. (표3 참조)
- 핵심 사회 기관 중에서 정부(52%→43%), 기업(56%→53%), 비정부 기구(61%→58%)의 2012년 세계적 신뢰도는 전년에 비해 하락한 반면, 유일하게 미디어 신뢰도만 49%에서 52%로 상승했다. (표3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한국 여론주도층에서 미디어 신뢰도의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
- 미디어의 신뢰도 추락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병행한다. 여론주도층(25-64세)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1년 50%에서 2012년 33%로 크게 떨어졌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에 대한 불신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불신의 확대 폭(-17%)도 세계 평균(-9%)에 비해 두 배에 이를 정도로 훨씬 크다. (세계 평균 2011년 52% → 2012년 43%.) (표3 참조)
- 이와 반대로 여론주도층(25-64세)의 비정부 기구에 대한 신뢰도는 2011년 62%에서 2012년 67%로 상승했다. (세계 평균은 61% → 58% 감소). (표3 참조)
- 참고)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11년 58%에서 2012년 42%로 하락했다.

<표3> 여론주도층(25-64세)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정부	기업	미디어	NGO
2011년	한국	50%	46%	53%	62%
	세계 평균	52%	56%	49%	61%
2012년	한국	33%	31%	45%	67%
	세계 평균	43%	53%	52%	58%

출처: '2012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 한국 세부 결과'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²⁹⁾

28) 아래 내용에서 사용된 통계 자료는 모두 '2012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 한국 세부 결과'에서 가져온 것이다. <http://www.edelman.kr/sites/kr/pages/insights.aspx>

29) 위와 같은 곳.

- 사회의 기능 수행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35세부터 64세에 이르는 시니어 여론주도층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추이를 보면: (표4 참조)
- ㄴ 이명박 정부 취임 직전인 2007년(2008년 보고서)의 미디어 신뢰도는 60%였다가,
- 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2009년 보고서)에는 55%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 2012년의 4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ㄴ 이명박 정부의 집권 기간만 비교해도 첫해(55%)부터 4년차인 2011년까지 11%가 추락했다.

<표4> 연령 그룹별 여론주도층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 35-64세	60%	55%	50%	50%	44%
한국 25-34세	60%	38%	-	-	-
한국 24-64세	60%	45%	49%	53%	45%
세계평균 35-64세	48%	46%	45%	46%	47%

출처: 2009년과 2011년, 그리고 2012년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합 작성.³⁰⁾

*** 2009년 제10회 신뢰도 지표 조사**

- 2008년 제9회 신뢰도 조사(조사기간 2007.10. - 2007.11.)에서 35-64세 이외에 처음으로 25-34세 그룹의 주니어 여론주도층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2009년 제10회 조사 보고서에서 발표된 한국 여론주도층의 연령별 신뢰도 지표를 보면 여론주도층의 연령별 신뢰 성향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원년의 말(2008년 11월 5일 - 12월 14일)에 실시된 조사(2009년 제10회 신뢰도 지표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표5 참조)
- ㄴ 이명박 정부 취임 직전인 2007년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연령 그룹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60%였으나, 2008년 시니어(35-64세) 여론주도층의 신뢰도(55%)는 5% 낮아진 반면, 젊은(25-34세) 여론주도층의 신뢰도(38%)는 22%의 큰 폭으로 급락했다.
- ㄴ 2008년 주니어 여론주도층의 정부,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시니어 그룹보다 높고, 비정부 기구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 ㄴ 그러나 2009년에 주니어 그룹의 정부, 기업,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시니어 그룹보다 크게 감소하고 비정부 기구에 대한 신뢰는 크게 증가하여, 핵심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 졌다.
- ㄴ 정권 교체를 전후하여 나이 많은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친 정부, 친 기업적이고 비정부 기구에 비판적이었던 젊은 여론주도층이 급격히 정부, 기업, 미디어에 비판적이고, 비정부 기구에 긍정적인 성향으로 전환되었다.

30) '2012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 한국 세부 결과'와 '2011 Edelman Trust Barometer는 <http://www.edelman.kr/sites/kr/pages/insights.aspx> 에서 볼 수 있으며, '2009 Edelman Trust Barometer. Korea Report'는 <http://de.slideshare.net/Edelmankorea/2009-the-edelman-trust-barometer-korea-report> 에서 볼 수 있다.

<표5> 연령 그룹별 여론주도층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NGO	기업	정부	미디어
2008년	25-34세	42%	52%	44%	60%
	35-64세	59%	43%	40%	60%
2009년	25-34세	60%	32%	36%	38%
	35-64세	57%	45%	38%	55%

출처: '2009 Edelman Trust Barometer. Korea Report'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이러한 성향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 2009년 한국에서 여론주도층(25-64세)의 기업(39%), 정부(37%), 미디어(45%)에 대한 신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기업 57%, 정부 52%, 미디어 56%)은 물론, 세계 평균(기업 50%, 정부 43%, 미디어 47%)보다도 낮은 반면, 비정부 기구에 대한 신뢰도(58%)는 모두 더 높다(아시아 평균 51%, 세계 평균 54%). (표6 참조)
-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과 비교하면, 미디어 뿐 아니라, 특히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참고)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2008년 63%에서 2009년 46%로 크게 떨어졌다.

<표6> 여론주도층(25-64세)의 사회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 비교(2009년)

	NGO	기업	정부	미디어
한국	58%	39%	37%	45%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51%	57%	52%	56%
세계 평균	54%	50%	43%	47%

출처: '2009 Edelman Trust Barometer. Korea Report'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국내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2년 언론인 의식 조사

* 언론 활동에 대한 진단

-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언론 활동에 대한 언론인 스스로의 진단은 중간(3점) 이하다. 언론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에서 2.80점이며, 언론 활동의 자유는 3.00점, 보도의 공정성은 2.70점이다. (표7 참조)
- 언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35.8%)는 응답이 자유롭다(32.7%)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많다. 특히, 공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전혀 공정하지 않다’와 ‘별로 공정하지 않다’)이 47.8%로, ‘대체로 공정하다’와 ‘매우 공정하다’는 긍정적 응답(19.2%)보다 두 배 이상 많다.³¹⁾
- 시기적으로 보면 언론 활동에 대한 진단에서 공통적 경향이 발견된다. 오프라인 매체 언론인의 경우, 언론 전반에 대한 만족도나 언론 역할과 기능 수행, 언론 활동의 자유, 그리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모두 2007년을 기점으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 오프라인 매체 언론인의 경우, 역할과 기능 수행과 언론 활동의 자유, 그리고 언론 보도 공정성 척도는 2003년 각각 2.62, 3.22, 2.71에서 2005년 계속 상승하여 2007년에 3.01, 3.10, 3.3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후 2009년과 2012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단지 공정성만 2009년(2.62점)에 0.46점 떨어졌다가 2012년에는 2.70점으로 소폭(0.08점) 상승했다. (표7 참조)

<표7> 언론인들의 언론 활동에 대한 인식 (1-5점의 5점 척도)

연도	매체 구분	언론 전반 만족도	언론 역할과 기능 수행	언론활동의 자유	언론보도 공정성
2003	오프라인 매체	2.53	2.62	3.22	2.71
2005	오프라인 매체	2.87	2.93	-	2.99
	온라인 매체	2.68	2.47	-	2.49
2007	오프라인 매체	3.01	3.10	3.37	3.06
	온라인 매체	2.90	2.78	2.98	2.50
2009	오프라인 매체	2.70	2.84	3.07	2.62
	온라인 매체	2.54	2.73	2.86	2.61
2012	오프+온라인 매체	-	2.80	3.00	2.70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해당 연도의 기자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³²⁾

31) 배정근(2012).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업무량 증가 심화. 2012 기자의식 조사 결과, 1989년 이후 변화 추이. '신문과 방송', 2012년 8월호, 500호 특집, 22쪽.

http://www.mediagaon.or.kr/jsp/mdata/monthly_view_other.jsp?seq=544736

32) 조영현(책임연구) (2003). 한국의 언론인 2003. 제8회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의식조사기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발행. 조사분석 2003-02; 오수정(책임연구) (2005). 한국의 언론인 2005.

* 언론 자유의 제한 요인

-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3대 요인을 순위대로 묻는 문항의 응답을 보면, 전체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광고주의 악영향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은 2007년까지 크게 축소되던 정부 및 정치권력의 영향이 200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다. (표8 참조)
- 위 문항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 2012년 언론인들이 1위로 꼽은 것은 광고주(65.3%)이고, 정부/정치권력(65.2%)이 2위이지만 1위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 다음 큰 차를 두고 사장/사주(48.8%)가 3위고, 편집보도국 간부(41.5%)가 그 뒤를 잇는다. (표8 참조)

- 광고주의 영향: (표8 참조)

- ↳ 광고주는 전통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부정적 요인 1위로 지목되어왔는데, 2003년을 예외로 하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역시 광고주가 1위에 올라있다.
- ↳ 언론 자유와 관련하여, 광고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초기 온라인 매체 언론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후 점차 오프라인 언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는 경향이다.
- ↳ 오프라인 매체 언론인들의 광고주 지목 비율은 2003년 44.5%에서 2005년 60.5%로 늘어난 후 2007년(61.0%)과 2009년(60.8%)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에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8 참조)
- ↳ 그러나 온라인 매체 언론인의 비율은 2005년에는 69.7%로 오프라인 언론인보다 9.2%가 높았지만, 2007년 68.3%, 2009년 64.3% (표8 참조) 그리고 2012년의 60.2%(인터넷 매체 언론인, 표10 참조)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 정부 및 정치권력의 영향: (표8 참조)

- ↳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서 정부 및 정치권력의 영향은 매우 극적인 변동을 보인다.
- ↳ 이 요인을 꼽는 언론인들의 비율은 2003년 60.3%를 기록한 이후 2005년에 오프라인 언론인 39.8%, 온라인 37.2%로 크게 떨어졌고, 2007년에는 각각 34.3%와 21.6%까지 낮아졌다.
- ↳ 이 비율은 2009년에 56.7%와 51.4%로 다시 급격히 상승(각각 22.4%와 29.8% 증가)하더니 2012년에는 65.3%로 광고주와 같은 수준(65.2%)으로 높아졌다.³³⁾

제9회 신문·방송·통신·인터넷 기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발행,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 황치성(책임연구) (2007). 한국의 언론인 2007. 제10회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매체 기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발행, 조사분석 2007-01,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 안계현(책임연구) (2009). 한국의 언론인 2009. 제11회 기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발행, 조사분석 2009-01,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 배정근(2012), 위와 같은 자료, 21-30쪽. 1989년 제1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부터 2009년 제11회 기자 의식조사 자료까지 모두 <http://kpfra.tistory.com/73> 에 있다.

33) 배정근(2012)의 논문(앞의 자료)에는 2005년 34.3%와 2007년 23.3%로 나와 있다. 언론재단이 발표한 '한국의 언론인 2005' 및 '한국의 언론인 2007'의 수치와 다르다. 여기서는 언론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의 자료를 사용했다.

<표8> 언론의 자유 제한 요인 (3순위까지의 합계, 단위: %)

매체 유형	2003	2005		2007		2009		2012
	오프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온
정부/정치권력	60.3	39.8	37.2	34.3	21.6	56.7	51.4	65.2
언론법/제도	22.7	18.3	14.7	20.3	16.7	19.7	34.3	14.2
편집/보도국 간부	77.1	43.4	46.1	51.2	51.7	51.8	38.5	41.5
자기 검열 및 조직 내적 구조	34)	42.8	48.1	42.2	48.3	35.6	31.5	36.7
광고주	44.5	60.2	69.7	61.0	68.3	60.8	64.3	65.3
사주/사장	- 35)	43.6	53.9	40.3	46.6	44.3	42.9	48.8
이익단체	22.8	15.9	11.8	13.9	21.7	10.2	2.9	10.2
시민단체	22.5	15.3	5.9	10.5	1.7	5.1	0.0	5.4
독자/시청자/네티즌	27.9	17.1	10.7	22.0	21.7	15.1	34.3	11.4
기타	2.1	1.6	2.0	4.0	1.7	0.3	0.0	0.6
모름/무응답	0.0	2.0	0.0	0.0	0.0	0.1	0.0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해당 연도의 기자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³⁶⁾

- 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 중 정부/정치권력이 차지하는 순위는 2003년 2위에서 2005년 5위, 2007년 7위까지 낮아졌다가 2009년 2위로 뛰어 올랐으며, 2012년에는 광고주의 영향력과 거의 동일한(0.1% 차이) 1위 수준이다. (표9 참조)
- ㄴ 2012년 정부 및 정치권력이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식하는 언론인은 2007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오프라인 매체) 내지 3배(온라인 매체) 늘어난 셈이다.

<표9> 언론의 자유 제한 요인 중 정부/정치권력의 순위 (3순위까지의 합계)

매체 유형	2003	2005		2007		2009		2012
	오프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온
순위 (합계, %)	2위 (60.3)	5위 (39.8)	5위 (37.2)	5위 (34.3)	7위 (21.6)	2위 (56.7)	2위 (51.4)	2위 (65.2)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해당 연도의 기자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³⁷⁾

34) 2003년에는 '사주/사장'이란 항목이 없었고, '편집·보도국 간부'와 '기자 자신의 자기 검열 및 조직 내적 구조'가 하나로 묶여 '편집·보도국의 내적 구조'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률이 77.1%였다.

35) 2003년에는 사주가 본인의 가치관, 언론의식구조, 지역토호세력, 언론개혁 등과 함께 기타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기타의 값이 2.1%이다.

36) 주) 33 참조.

37) 주) 33 참조.

*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에 대한 소속 매체별 차이

- 정부 및 정치권력을 언론 자유의 제한 요소로 인식하는 비율이 특히 지상파 3사 언론인들에게서 눈에 띄게 높다. 이 비율은 83.9%로 다른 매체 언론인(65.2%)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표10 참조)
- 지상파 3사 외에 종교 및 보도전문, 인터넷 언론사, 지역방송에서 더 많은 언론인들이 광고주(각각 61.5%, 60.2%, 51.0%) 보다 정부와 정치권력(각각 74.5%, 68.9%, 67.2%)을 언론 자유의 제한 요인으로 꼽았다. (표10 참조)

<표10>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요인: 소속 매체별 (2012년, 3순위까지의 합계 수치, 단위: %)

소속매체	정부/정치권력	언론관련법/제도	사주/사장	편집보도국간부	기자의자기검열및조직내적구조	광고주	이익단체	시민단체	독자/시청자/네티즌	기타
전체	65.2	14.2	48.8	41.5	36.7	65.3	10.2	5.4	11.4	0.6
경제(특수)신문	44.5	5.8	44	55.7	34.4	85.5	10.2	3.4	16.5	0
스포츠신문	48.7	24.2	62.3	49.1	41.6	63.1	0	0	11	0
전국종합일간/통신	71.2	5.2	44.6	39.5	45	72.1	8.4	4.1	8.6	0
지상파3사	83.9	16.8	51.8	48.8	42.4	36.8	4.4	7.7	7.2	0
지역방송	67.2	21.3	65.2	41.5	36.9	51.0	10.4	1.5	5	0
지역종합일간	59.5	15.1	59.6	39	28.7	65.7	12.6	7.9	11.8	0
종교/보도전문	74.5	22	33.4	25.6	37.1	61.5	15.7	10.5	13.6	6.1
인터넷언론사	68.9	24.3	37.9	40.8	35	60.2	10.7	3.9	15.5	1

출처: 배정근(20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³⁸⁾

* 기사 선택 및 관점 내지 작성의 자유

- 기자들이 현장에서 실무 작업할 때 체감하는 자유는 어느 정도일까?
- 2012년, ‘기사를 선택하거나 작성할 때, 또는 앵글을 정할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묻는 질문에 거의 완벽하게 또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응답한 언론인은 모두 합쳐 단지 85.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4점 척도에서 3.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3년 언론인 의식조사가 시작된 이래, 1995년의 2.86점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값이다.³⁹⁾
- 오프라인 매체 언론인의 경우, 2003년 3.07점에서 2005년 3.19점, 2007년 3.21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9년에는 1.5점의 큰 폭으로 떨어져 2003년 수준 이하인 3.06점이었으며, 2012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표11 참조)
- 온라인 매체 언론인의 경우, 오프라인 매체와 구분되어 조사된 2005년에 3.36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2년의 3.0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표11 참조)
- 오프라인 매체의 경우에는 2007년을 정점으로, 온라인 매체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언론사 내부의 자유로운 작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8) 배정근(2012), 같은 자료.

39) 2003년 이전의 점수는 1993년 3.11, 1995년 2.86, 1997년 3.12, 1999년 3.13, 2001년 3.13이다. 배정근(2012), 앞의 자료, 26쪽.

<표11> 기사 선택/관점/작성의 자유 (단위: %)

	2003	2005		2007		2009		2012
	오프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온
거의 완벽한 자유	17.0	27.4	43.1	29.1	35.0	14.8	24.3	85.1%
어느 정도의 자유	73.5	64.4	51.0	62.6	55.0	76.1	68.6	
별로 자유롭지 못함	8.1	8.1	4.9	7.7	8.3	9.1	7.1	-
전혀 자유롭지 못함	0.7	0.0	1.0	0.3	1.7	0.0	0.0	-
모름/무응답	0.7	0.0	0.0	0.2	0.0	0.0	0.0	-
평균(4점 만점)	3.07	3.19	3.36	3.21	3.23	3.06	3.17	3.0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해당 연도의 기자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⁴⁰⁾

* 언론인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중간 정도(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에서 최저 2009년 온라인 5.06점, 최고 2007년 오프라인 6.02점)에 머무르고 있다. (표12 참조)
- 소속 매체 유형에 관계없이 언론인들은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신문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하며, 인터넷 매체의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05년을 제외하면, 온라인 매체 언론인들도 인터넷 매체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방송과 신문은 물론 언론 전반 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 언론인들이 느끼는 신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07년 6.19점을 제외하고 5점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방송의 경우 2007년까지 6점대였으나, 2009년 이후 5점대로 낮아졌다. (표12 참조)

<표12> 언론인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0-10점)

	2003	2005		2007		2009		2012
	오프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온
언론전반	5.73	5.63	5.97	6.02	5.25	5.28	5.06	5.4
신문	5.70	5.64	5.39	6.19	5.00	5.22	4.90	5.4
방송	6.08	6.10	8.67 ⁴¹⁾	6.57	6.12	5.87	5.64	5.9
인터넷매체	-	4.36	6.15	4.33	4.85	3.77	4.54	4.0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해당 연도의 기자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⁴²⁾

40) 주) 33 참조.

41) 2005년 언론인 조사 보고서에는 8.67로 발표되었고, 통계 설명에도 8.67로 적혀 있다. 그러나 2009년 언론인 조사 보고서의 '언론인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의 비교 도표에는 2005년 온라인 기자의 방송에 대한 점수가 6.86으로 나와 있다.

42) 주) 33 참조.

한상진사회연구소

* 시민의 기본권 인식 조사

- 2007년, 2010년, 2012년 동일한 설문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식 추이를 조사.⁴³⁾
- ↳ 2007년 1월 전국 조사: 사회변동 선도연구(Transformation Research Initiative, TRI)의 국제연구팀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설문을 이용했으며 갤럽에 의뢰하여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 수집.⁴⁴⁾
- ↳ 2009년 1월 전국 조사: 한상진 사회연구소가 갤럽에 의뢰하여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 수집.
- ↳ 2012년 3월 전국 조사: 한상진 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 수집.

- 설문: “다음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에서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임의 연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응답: 전적으로 및 대체로 동의, 보통, 별로 및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5점 척도.
- 응답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의 체감지수를 산출.
- 분석내용:
 - ↳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전과 비교하여 집권 5년 동안 시민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 ↳ 이명박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07년, 언론 자유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4점,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체감지수는 58.4점이었고, 임의동행의 두려움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의 체감지수는 50.2점으로 세 가지 기본 자유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모두 50점을 상회했으며, 특히 언론 자유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다. (표13 참조)
 - ↳ 그러나 2009년에는 언론 자유(50.2점)와 집회의 자유(46.5점)에 대한 체감도가 10점을 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표13 참조)
 - ↳ 2012년 3월의 조사결과를 보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46.8점, 집회결사 자유의 체감지수는 41.7점, 그리고 임의연행의 두려움이 없다는 국민의 체감지수는 37.8점으로, 하락 폭은 줄었지만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표13 참조)

<표13>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체감 지수 (기준: 100점 만점)

	2007년	2009년	2012년
언론 자유를 향유	60.4	50.2	46.8
집회의 자유를 향유	58.4	46.5	41.7
임의 연행의 두려움 없음	50.2	43.2	37.8

출처: 한상진 (2012)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⁴⁵⁾

43) 한상진(2012). 누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나? 민간사찰이 총선에 미치 파장 분석. 2007년, 2010년, 2012년의 전국조사 결과 비교, 3쪽.

http://www.hantheory.org/bbs/data/gil2/1341974379/2012.4.5._fear.pdf

44) 위와 같은 곳, 주) 1, 2, 3.

미디어오늘

• 언론학자 설문 조사

- * 조사 기간: 2010. 12. 30 - 1. 5.
- * 방법: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에게 이메일 설문을 발송하였고, 147명이 응답.
- * 조사 결과:46)
 -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 ↳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86.4%가 위축되었다고 응답했다. 10.2%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으며, 개선되었다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 ↳ 위축된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다소 위축(17.0%, 25명) 보다 심각하게 위축되었다는 답이 69.4%(102명)으로 4배 이상 많았다.
 -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 ↳ 언론학자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낙하산 인사와 종편 허용 등을 앞세운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압력(61.9%)을 꼽았다.
 - ↳ 큰 폭의 차이를 두고 대기업 광고주를 비롯한 자본권력 눈치 보기(24.5%)가 2위였으며, 획일화된 출입처 중심의 취재관행(6.1%), 그리고 네티즌 구속과 집회, 시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 위축(4.8%)이 그 뒤를 이었다.
 -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선결 과제:
 - ↳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 이사회와 정치권 독립(81.6%, 120명)이 빨리 해결되어야 할 거의 절대적 과제로 꼽혔다.
 - ↳ 그 외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재정 자립(8.8%), 시청자 기구 확대(6.1%), 경영진의 임기 보장(1.4%) 문제는 해결 순위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시사인

• 2012년 언론 매체 신뢰도 조사

- * 개요
 - 조사기간: 2012. 10. 6. - 10. 7.
 -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 프레임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
- * 2012년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 1순위 응답을 보면 KBS가 20.7%로 1위, 한겨레(13.5%)가 2위이며, 3위에는 9.4%의 조선일보가 올랐고, 그 다음은 YTN(8.9%), MBC(6.9%) 순이다. (표14 참조)

45) 위와 같은 자료, 4쪽.

46) 이정환(2010). 언론학자들 69.4% "언론자유 심각하게 위축".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63.html>

<표14> 언론 매체 신뢰/불신도 순위: 1순위 응답(단위: %)

가장 신뢰하는 언론	언론 매체	가장 불신하는 언론
20.7	KBS	3.2
13.5	한겨레	9.4
9.4	조선일보	26.2
8.9	YTN	1.1
6.9	MBC	8.5
6.7	네이버	1.3
4.8	경향신문	2.0
4.8	SBS	0.9
3.5	중앙일보	4.2
3.1	오마이뉴스	4.5

출처: '시사IN'의 언론 신뢰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⁴⁷⁾

- 눈에 띄는 것은 MBC의 신뢰도 저하 경향이다.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 MBC의 신뢰도는 16.1%로 KBS(27.3%)보다 크게 뒤져 있었으나, 2009년(19.0%)에는 근소한 차이지만 처음으로 KBS(18.4%) 보다 앞섰고, 2010년(18.0%)에도 비슷한 비율로 앞선 순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2년 MBC의 신뢰도는 2010년 보다 11.1% 감소하면서 KBS와의 순위 역전은 물론 격차도 조사 이후 최대 폭인 13.8%로 벌어졌고, 전체 매체 신뢰도 순위에서도 5위로 추락했다. (표15 참조)
- 시사인이 발표한 자료만을 보면, MBC의 신뢰도는 조사 이후 최고치가 20%에도 이르지 못해 신뢰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10%대의 낮은 수준이지만, 그나마 2012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급락했다.

<표15> KBS와 MBC의 신뢰도 추이 (1순위 응답, 단위: %)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KBS	27.3	18.4	17.8	20.7
MBC	16.1	19.0	18.0	6.9

출처: '시사IN'의 언론 신뢰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⁴⁸⁾

전국언론노동조합

• 파업 상황 자료

* 파업 진행 상황

- MBC와 KBS, 그리고 YTN 등 방송사 3사의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는 초유의 상황.
- YTN 55일, KBS 95일, 그리고 MBC는 170일 동안의 최장기 파업 투쟁. (표16 참조)

47) 차형석(2012). MBC 신뢰도, 2년만에 '3분의1 토막'. 시사IN Live, 2012.10.22.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1>

48) 위와 같은 곳.

- MBC 노조의 20년 역사동안 모두 11번의 파업이 있었는데, 그 중 이명박 정권에서만 5번 파업(정영하 MBC 노조 본부장).⁴⁹⁾

<표16> 2012년 언론 파업 진행 상황(2012. 10. 19. 현재)

MBC 본부	2012년 1월 30일~7월 17일	170일
KBS 본부	2012년 3월 6일~6월 8일	95일
YTN 지부	2012년 3월 8일(1차 게릴라) 이후 10차례	55일
연합뉴스지부	2012년 3월 15일~6월 25일	103일
국민일보지부	2011년 12월 23일~6월 14일	173일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 MBC 17개사	2012년 3월 12일~7월 17일	128일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⁵⁰⁾		

* 언론인 해고 및 징계 상황

- 2008년 10월 6일, YTN의 구본홍 사장은 노종면 노조 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하고, 27명을 징계.
- 전두환 정권 이후 첫 언론인 해고.
- 이명박 정부의 취임 원년에 시작된 언론인 징계의 수는 임기 5년 차인 현재 (2012년 10월 19일)까지 448명을 넘어섰다. (표17 참조)
- 징계자의 수 역시 전두환 정권의 강제적 언론 통폐합 이후 최대 규모.
- 구속 언론인: 노종면(2009년, 당시 YTN 노조위원장). 10년 만의 언론인 인신 구속.

<표17>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언론인 해고 및 징계 상황 (2012. 10. 19. 현재)

	MBC	KBS	YTN	SBS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소계
해고	8		6			1	2	17
권고사직						2		2
정직	79	15	26		4	6	2	132
출근정지	1							1
감봉/감급	43	15		2	1	5		66
근신	30			1				31
견책		3	1		2			6
경고	1	100	17		2			120

49) 최유리(2012). “언론은 개혁의 대상” ... “자본의 영향력이 갈수로 커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탄압 토론회 열려. 2012. 11. 15. 전국언론노조 홈페이지.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8269>

50) 전국언론노조가 2012년 10월 19일까지 작성한 통계로, 그 이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pub?key=0Ag-O8qiDv3OjdEJiNmJfUmxXWWUyVGNOOWtlaTdDOWc&output=html>

주의각서	7							7
직무정지							1	1
대기발령	54		1	1		6		62
명령휴직	3							3
합계	223	133	51	4	9	20	5	448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⁵¹⁾								

• 언론 파업 국민 여론조사

- * 조사: (주)한백리서치.
- * 기간: 2012. 5. 22. - 5. 23.
- * 대상: 전국 성인 남녀 1061명.
- * 방법: 휴대전화+유선전화.
- * 신뢰도: 95% ±3.01% P.
- * 조사 결과:⁵²⁾
 - 일부 언론인들과 노조의 정치 투쟁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파업이라는 정부와 규제기관 및 언론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10명 중 8명 이상의 국민(82.6%)들이 언론인 파업에 대해 알고 있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공정보도와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에 63.9%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음은 22.9%, 잘 모르겠음은 13.0%다.
 -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장악과 언론사 사찰, 공정보도 훼손 등을 저지하기 위한 언론인의 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 62.7%, 찬성하지 않음 25.9%, 잘 모르겠음 11.4%로, 공정보도와 중립성 훼손에 대한 문항에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동시에 4명 중 1명은 파업의 명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정도 눈에 띈다.
 - 언론 파업 해결을 위한 사장들의 사퇴 필요성에 대해 사퇴필요 75.8%, 사퇴 불필요 13.0%, 잘 모르겠음 11.2%의 응답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방송사 사장을 현재 언론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 이러한 내용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81.8%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불필요 10.5%, 잘 모르겠음 7.7%)
 - 언론 파업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필요성(필요 75.6%, 불필요 19.5%, 잘 모르겠음 4.9%)이나 해직 등 피해 언론인 대책(피해자 원상회복 필요 72.3%, 원상회복 불필요 16.2%, 잘 모르겠음 11.5%)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의 국민들이 언론 파업과 관련한 사실 규명과 책임 추궁, 그리고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51) 위와 같은 곳.

52) 이기범(2012). 국민들 '언론 파업' 압도적지지. 2012. 5. 29. 전국언론노조 홈페이지.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8060>

참고 자료

- 고재열(2009). “한국 언론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시사인 라이브, 2009.04.0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5>
- 국제앰네스티(2012).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 보고서. 남한(대한민국).
<http://amnesty.or.kr/about/연례보고서>
- 김민경(2010). 유엔 특별보고관 15년 만에 방한. MBC파업현장 등 방문 12일간 ‘표현의 자유’ 실태조사. 한겨레, 2010.05.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9469.html
- 배정근(2012).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업무량 증가 심화. 2012 기자의식 조사 결과, 1989년 이후 변화 추이. ‘신문과 방송’, 2012년 8월호, 500호 특집, 21-30쪽.
http://www.mediagaon.or.kr/jsp/mdata/monthly_view_other.jsp?seq=544736
- 안계현(책임연구)(2009). 한국의 언론인 2009. 제11회 기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발행. 조사분석 2009-01.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
<http://download.kpf.or.kr/MediaPds/XJUMRVIFOWIBTKI.pdf>
- 오수정(책임연구)(2005). 한국의 언론인 2005. 제9회 신문·방송·통신·인터넷 기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발행.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
<http://download.kpf.or.kr/MediaPds/HEXAYBBLGPKEUOT.pdf>
- 이기범(2012). 국민들 ‘언론 파업’ 압도적지지. 2012. 5. 29. 전국언론노조 홈페이지.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8060>
- 이정환(2010). 언론학자들 69.4% "언론자유 심각하게 위축".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63.html>
- 조영현(책임연구)(2003). 한국의 언론인 2003. 제8회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의식조사기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발행. 조사분석 2003-02.
<http://download.kpf.or.kr/MediaPds/BFXVOSLMLKRSOGS.pdf>
- 차형석(2012). MBC 신뢰도, 2년만에 ‘3분의1 토막’. 시사IN Live, 2012.10.22.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1>
- 최유리(2012). “언론은 개혁의 대상” ... “자본의 영향력이 갈수로 커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탄압 토론회 열려. 2012. 11. 15. 전국언론노조 홈페이지.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8269>
- 한상진(2012). 누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나? 민간사찰이 총선에 미치 파장 분석. 2007년, 2010년, 2012년의 전국조사 결과 비교, 3쪽.
http://www.hantheory.org/bbs/data/gil2/1341974379/2012.4.5._fear.pdf
- 황경상(2010).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비협조에 당혹감”. 인터넷 경향신문, 2010-0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00253305&code=94&cmtpage=&cmtpage=1
- 황치성(책임연구)(2007). 한국의 언론인 2007. 제10회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매체 기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발행. 조사분석 2007-01.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
<http://download.kpf.or.kr/MediaPds/FZBRTXNGEACNGSJ.pdf>

- Edelman(2009). 2009 Edelman Trust Barometer. Korea Report.
<http://de.slideshare.net/Edelmankorea/2009-the-edelman-trust-barometer-korea-report>
- _____ (2011). 2011 Edelman Trust Barometer.
<http://www.edelman.kr/sites/kr/pages/insights.aspx>
- _____ (2012). 2012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 한국 세부 결과.
<http://www.edelman.kr/sites/kr/pages/insights.aspx>
- English, Cynthia / Becker, Lee (2012). Two-Thirds Worldwide Say Media Are Free in Their Countries. People's perceptions align with press freedom indicators.
<http://www.gallup.com/poll/153455/Two-Thirds-Worldwide-Say-Media-Free-Countries.aspx#1>
- English, Cynthia / Vlad, Tudor (2011). People Perceive Media Freedom Differently Worldwide. Chadians among the least likely to say media in their country have a lot of freedom.
<http://www.gallup.com/poll/150515/People-Perceive-Media-Freedom-Differently-Worldwide.aspx#1>
- Freedom House(2012). Freedom of the Press 2012. Breakthroughs and Pushback in the Middle East. selected data from freedom house's annual press freedom index.
<http://www.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Booklet%20for%20Website.pdf>
- _____ (2012). Freedom of the Press. Detailed Data and Sub-Scores 1980-2012.
www.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FOTP%20Detailed%20Data%20and%20Subscores%201980-2012.xls
- Groß, Elke / Sieker, Ekkehard (2007). Reporter ohne Grenzen – eine ‚Lovemark‘ der US-Regierung.
<http://www.arbeiterfotografie.com/medien/2007-07-25-reporter-ohne-grenzen.html>
- La Rue, Frank(2010. 라 뤼, 프랭크).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보고 기자회견 전문. <http://act.jinbo.net/drupal/node/5608>
- _____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istr.: 21 March 2011. A/HRC/17/27/Add.2.
http://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2011유엔특별보고관한국보고서_en_0.pdf. 한글 번역본: 프랑크 라 뤼.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http://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2011유엔특별보고관한국보고서_NGO_번역본_.pdf
- Reporters Without Borders(2009). Internet Enemies. 12 march 2009.
<http://www.reporter-ohne-grenzen.de/fileadmin/rte/docs/2009/Internetbericht.pdf>
- _____ (2010). World Day against cyber censorship. 12 March 2010. Enemies of Internet Countries under surveillance. 12 march 2009.

http://en.rsf.org/IMG/pdf/Internet_enemies.pdf

_____ (2011). Internet Enemies Report 2012.

http://march12.rsf.org/i/Report_EnemiesoftheInternet_2012.pdf

_____ (2011). Internet Enemies. March 2011. 12 March 2011.

http://www.reporter-ohne-grenzen.de/fileadmin/rte/docs/2011/110311_Internetbericht_engl.pdf

_____ (2012). 2011-2012 Press Freedom Index. How the index is compiled. Paris, 20 January 2012.

http://en.rsf.org/IMG/pdf/how_the_2011-2012_index_was_compiled.pdf

_____ (2012). Internet Enemies Report 2012. 12 March 2012.

http://www.reporter-ohne-grenzen.de/fileadmin/rte/pics/Pressemitteilungen/120312_Internetbericht_2012_eng.pdf

_____ (2012). World Press Freedom Index 2011-2012. CRACKDOWNS ON PROTESTS CAUSE BIG CHANGES TO INDEX POSITIONS. 25.01.2012.

_____ (2012). World Press Freedom Index 2011-2012.

http://en.rsf.org/IMG/CLASSEMENT_2012/C_GENERAL_ANG.pdf